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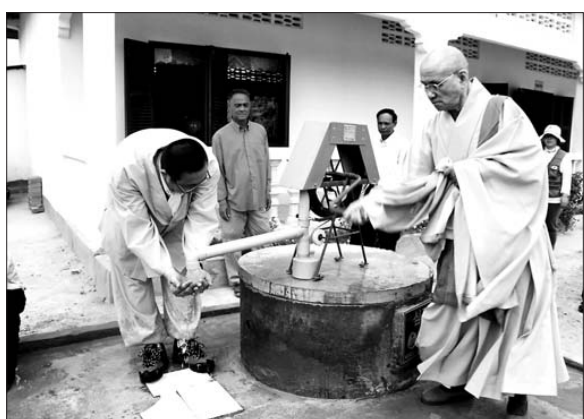
국가·인종·문화 넘어서...“지구촌 공생에 앞장”

캄보디아 우물 2000기 완공, 11월 11일 현지서 기념행사

불교계 국제개발구호단체인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지구촌공생회는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월 11~15일 3박 5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기념행사를 갖는다. 12일 오전에는 캄보디아 따깨오우에 위치한 프랑빠야프라우금산사 초등학교에서 생명의 우물 2000기 완공행사가, 같은 날 저녁에는 프놈펜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가 거행된다. 행사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100여 명의 실무자와 후원자를 비롯해 캄보디아 정부 공무원, 지역민,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직원, 코이카(KOICA)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13일과 14일에는 지구촌공생회 사업지 및 우물사업장과 유적지 등을 방문한다.

종교·이념·인종 아우르는 단체

지구촌공생회는 2003년 전 세계 총무원장을 역임한 월주 스님이 창립한 NGO단체로 현재 1100여 명의 후원자와 조계종 종신 스님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 선발이나 사업 진행에서는 표교



프랑빠야프라우금산사 초교에 건립된 우물을 직접 시연해보는 이사장 월주 스님과 사무처장 화평 스님(사진 왼쪽). 생명의 우물이 완성된 후 기뻐하는 캄보디아 어린이들(사진 오른쪽).

활동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종교, 이념 등의 경계를 넘어선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지구촌공생회는 설립 이후 캄보디아, 라오스, 스리랑카, 미얀마, 몽골, 네팔, 케냐에서 식수지원사업과 교육지원사업,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7개 국가에 37개 교육시설을 건립해 5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교육 혜택을 받았으며, 농장 4곳과 저수지 1곳을 구축해 2000여 명이 수확과 자립의 기쁨을 맛보았다. 이밖에 몽골에는 대형관정, 케냐에는 14기의 모터펌프와 핸드펌프, 미얀마에는 12기의 마을 공동물탱크를 지원해 약 20만명의 주민들이



이제 지구촌공생회는 '생명의 물' 사업을 시작했고, 우물 하나를 건립하면 그 마을 주민 약 100명에게 혜택을 돌아가면서 주민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 끊임없는 후원책도와 주민들의 요청으로 사업을 시작한지 5년만인 2010년 1월 생명의 우물 1000기가 완공됐다.

이 가운데 캄보디아 우물 사업은 2004년 11월 처음 시작했다. 캄보디아는 비옥한 농토와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지만 수도 프놈펜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상수도 시설이 전무했다. 때문에 캄보디아 영아 사망률의 80%가 물과 관련된 수인성 질환인 정도로 식수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타단체의 모범단체로 자리잡아 지구촌공생회는 우물 건립사업에 있어 타단체들의 모범단체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많은 단체들이 건립 후 관리소홀로 인한 우물이 많은 상황에서 지구촌공생회는 우물의 단순한 수리에서 더 나아가 정기적인 수질관리, 수량관리에 초점을 맞춰 우

물 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월주 스님은 국제개발협력사업분야에서 강령훈을 하기로 유명하다. 팔순의 고령에도 1년에 7~8회 해외지부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곳곳을 누비며 점검하며 젊은 활동가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각종 단체의 후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1000기를 넘어 2090기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환경재단, 가수 '비',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가수 소녀시대, 개인 후원자들의 후원과 홍보로 이룩한 결과다. 월주 스님은 "우리의 활동이 전 지구촌의 생명을 살리고 빈곤을 해소하여 인류의 고통을 다 없앨 수는 없지만 한사람, 한사람 후원자의 관심과 정성이 쌓이고 전파된다면 그만큼 지구촌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고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와 민족, 인종과 언어, 종교와 문화, 이념과 사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차별하지 않고 돕는 것이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의무다. 그리하여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또 다른 행복의 가치를 얻고, 지구촌 공동체 정성이 널리 함양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02)3409-0303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캄보디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로터스월드 씨엠립주에 공동자립장 준공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가 10월 16일 캄보디아 씨엠립주 프놈끄라움-수원마을에 공동자립적업장 준공식을 가졌다.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가 10월 16일 캄보디아 씨엠립주 프놈끄라움-수원마을에 공동자립적업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수원시 영태영 시장,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아동센터 센터장 지우 스님, 캄보디아 씨엠립 주정부 김 분송 주지사, 수원시 의사회, 수원시 관계자 및 프놈끄라움-수원마을 주민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로터스월드는 "지난 2012년 수원시와 업무협정을 체결 올해 3월부터 프놈끄라움-수원마을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사업, 주민의식 제고 및 마을개발 역량강화사업 등을 진행해 왔다"며 "이번에는 수원마을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주민자활의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을공동 자립적업장을 건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자립장은 약 318㎡(96평)의 규모로, 프놈끄라움-수원마을을 운영위원회를 통해 작업장 생산제품을 결정,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판매해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공동자립장에 바로 옆에 150㎡(45평) 규모의 탁아소를 건설 근무시간 동안 미취학아동들을 돌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로터스월드와 수원시는 마을공동자립적업장 준공식과 더불어 프놈끄라움-수원마을 초·중학교에 학습품을 전달하고 의료봉사 활동, 한국음식 축제 등의 행사를 펼쳤다. 로터스월드는 2007년부터 수원시와 캄보디아 씨엠립 주정부 업무협정을 체결 학교건물중축, 수원마을을 화장실신축 및 우물관정 사업 등을 함께 진행했다. 정해숙 기자 bwjhs@hyunbul.com

조계종 복지재단, 산하시설 종사자 연수

11월 5~6일 공주서 진행...10월 29일 노인복지포럼 개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11월 5~6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산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를 개최한다. '팀 리더십 대상 힐링캠프'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수에서는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간호사, 회계담당자, 안전관리인, 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참여해 기관종사자 간 정보교류를 통한 네트워크와 불교사회복지에 대한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재단은 △특강 '불교사회복지의 현황과 전망' △산하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뜻을 같이 한 다양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만남 △MBSR을 통한 힐링타임(치유프로그램) 등 구조화시킨 명상) 등을 진행해 참여자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정보

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복지재단은 10월 2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미래복지포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6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과 전반적 현황, 제도의 개선내용 및 향후 발전방향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복지재단은 '제15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유공자 추천 접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받는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제15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는 12월 5일 AW컨벤션센터(구 하림각)에

서 개최되며, 불교계 자비나눔 실천가 10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불교사회복지 실천활동을 공유하고, 널리 알리므로써 불교사회복지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에서는 불교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발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표창하며, 사회복지시설 단체운영부, 사회복지발전공헌부, 자원봉사활동부 3개의 영역에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이면 신청가능하다. 접수방법은 우편, 이메일(kinos-how@jabinanum.or.kr) 모두 제출해야 하며, 10월 31일 도착분에 한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복지재단 홈페이지(www.jabinanum.or.kr)를 참고하면 된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불교복지관, 청소년 진로탐색 센터

역삼청소년수련관, '나래꿈터' 10월 17일 개소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산하기관인 역삼청소년수련관(관장 현민)이 청소년 진로를 위한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서울시 강남구는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위한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나래꿈터'를 10월 17일 개소했다. 서울시로부터 '나래꿈터'를 수탁받은 역삼청소년수련관은 강남구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직업체험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나래꿈터는 '나의 미래를 꿈꾸는 터전'의 줄임말로 청소년 누구나 센터를 찾으면 꿈을 찾고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센터에서는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직업체험 중점학교 등 단위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직업체험장 자원 발굴 및 일터 멘토 관



청소년 진로직업지원센터인 나래꿈터가 개소했다.

리 △학교와 직업체험장 간 연계지원 등을 운영한다.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진로탐색의 과정을 통해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 전체가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강남구 내 사업장들의 교육기부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경남에 사는 친구들의 서울나들이

목동청소년수련관, 10월 24~27일 서울여행 행사 열어

경남지역 청소년을 초대해 서울을 여행하는 행사가 열린다.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관장 지완)은 10월 24~27일 3박 4일간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마을여행'을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 사업은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이 2011년부터 3년 연속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운영하고 있는 행사로 4개의 테마로 나누어 운영된다. 1일차 '설렘의 첫째 날'에는 환영식을 비롯한 여행 친구만들기, 체계적인 야경여행으로 첫 밤의 긴장을 풀고 서울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꿀킴의 둘째 날'에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서

울5대 미션투어를 펼친다. 3일차 '울림의 셋째 날'에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시민청&서울도서관, 서울역사박물관 등을 투어하며 즐거운 일정을 보낸다. '감동의 넷째 날'에는 서울여행을 마친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목동청소년수련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경상남도 청소년을 위한 즐겁고 새롭고 다채로운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 청소년을 위한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02)2646-1318 이나은 기자

팔관회

호국불교 의식을 재현 신라·고려시대

주최 :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주관 : 팔관회 THE PALGWAN HOE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불교TV BBS 부산불교방송

2013. 10. 24(목) ~ 10. 26(토) 3일간

(사)부산불교연합회 : 867-0501 (사)부산불교연합신도회 : 861-8800 (우)614-85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393-12 불교회관 400호

PALGWAN HOE

www.palgwanhoe.or.kr

10월 15일(화) 오후 3시 팔관회 세미나 대한불교진각장 명륜심인당

팔관회 10월 24일(목)~26(토)

준비일 10월 24일(목) 오후 7시 대한불교천태종 삼광사 불교영화 상영 '길 위에서'

소회일 10월 25일(금) 오후 1시 대한불교천태종 삼광사 호국영령 위령대제, 국왕행렬 재현, 호국법회, 대신조하의식, 백희가무

대회일 10월 26일(토) 오후 2시 대한불교조계종 금정총림 범어사 대웅전 "팔관재계 수계법회"

*팔관회 기간 중 각종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